

## 후삼국시대의 전개와 新羅의 終焉

### - 內亂期 신라 朝廷의 내부사정

Crisis Politics of Silla in the Last Filly Years

---

저자 (Authors)	李基東 Lee Ki-dong
출처 (Source)	<a href="#">신라문화 27</a> , 2006.2, 7-22 (16 pages) <a href="#">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27</a> , 2006.2, 7-22 (16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a>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ld=NODE01105846">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ld=NODE01105846</a>
APA Style	李基東 (2006). 후삼국시대의 전개와 新羅의 終焉. 신라문화, 27, 7-2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10 14:50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후삼국시대의 전개와 新羅의 終焉

- 內亂期 신라 朝廷의 내부사정 -

李 基 東\*

<目 次>

- |                          |                    |
|--------------------------|--------------------|
| I. 머리 말                  | IV. 敬順王의 高麗 의존과 歸附 |
| II. 반란국가들의 대두와 신라 조정의 고립 | V. 맺 는 말           |
| III. 朴氏王의 등장과 鮑石亭의 비극    |                    |

[국문초록] 韓國 역사상 최대의 진통을 겪었던 후삼국시대의 내란기에 반란 국가들인 후백제와 후고구려(뒤에는 고려)가 주역이었고, 신라는 고립무원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아무런 군사적 대비 없이 수도 경주만을 확보하는 데 만족했다. 그러므로, 歷史書에서도 889년 전국적인 농민반란이 일어난 때로부터 935년 고려에 자발적으로 항복할 때까지의 신라 조정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기 신라는 혼란상태를 수습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반란세력들의 영토 확장을 방임했을 따름이었다. 그러던 중 912년부터 927년 포석정의 비극을 맞을 때까지 3대에 걸쳐 박씨가 왕위를 차지하는 異變이 발생했다. 이 박씨 왕들은 그 이전의 김씨 왕들처럼 어떤 혁신적인 개혁을 꾀한 흔적이 없고, 역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호국사찰에서 불교의례를 거행한다거나 혹은 남산 산신의 加護를 비는 등 종교 祭儀에 열중했을 뿐이다. 다만 918년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이래 박씨 왕들은 고려와의 친선관계를 통해서 현상유지를 꾀했다. 하지만 이에 불만을 품은 후백제왕 견훤이 927년 경주로 쳐들어와 경애왕을 잡아 죽이고 대대적인 약탈을 자행하여 박씨 왕실은 短命으로 끝나고 다시금 김씨 왕실이 복구되었다.

견훤에 의해 왕이 된 경순왕이 930년 고려가 고창전투에서 후백제군을 격파한 것을 계기로 고려의 보호를 스스로 요청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 이래 신라는 전적으로 고려에 의존하면서 힘겹게 나라의 명맥을 이어 갔다. 935년 견훤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고려에 망명한 사건이 일어나자 이에 큰 충격을 받은 경순왕은 고려에 항복하기로 결심했다. 경순왕은 이 해 10월 신하들을 소집하여 자신의 결심을 피력했다. 비록 태자는 이에 맹렬히 반대했으

\*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나, 왕은 항복하기로 최후 결단을 내리고, 이 사실을 곧바로 고려에 통보했다. 그리고 왕은 11월 모든 관료를 이끌고 고려 수도에 가서 고려 태조에게 신하의 禮를 올렸다. 이로써 마침내 신라는 긴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영문초록] Silla was isolated in despair in the Later Three Kingdom period. So Silla did nothing but defend her capital Gyeongju without any military preparedness. From beginning of the nationwide peasant rebellion in 889 to surrendering to Goryeo in 935, the inside circumstances of Silla government was almost not mentioned in the dynastic histories of Silla.

At this time, Silla didn't have a counterplan handling the confused situation. And Silla could not help let the territorial expansion of Later Baekje and Later Goguryeo-it was called Goryeo after 918-take its own course. Meanwhile an extraordinary phenomenon that the Bak clan advance to the throne in place of the Kim clan during three successive reigns was happened from 912 to 927. They have never dared to reform the old political system as before. They did nothing but hold a Buddhist ceremony or a religious service for the mountain spirit of Namsan. After Wanggon found Goryeo, they only tried to maintain the present situation through the friendship with Goryeo. However Gyeonhwon was deeply discontented with this situation. He invaded Gyeongju in 927 and killed King GyeongAe. Gyeongju was plundered wholesale. With this, the royal lineage of the Bak clan ended and the Kim clan was restored to the throne.

In 930, Goryeo defeated Later Baekje in the battle of Gochang(Andong). This caused King Gyeongsun who ascended the throne by Gyeonhwon asked a protection of Goryeo. Thereafter Silla barely continued existence of a country with depending on Goryeo. Gyeonhwon was dethroned by his sons and came to Goryeo as an exile in 935. This was a great shock to King Gyeongsun. So he determined to an unconditioned surrender to Goryeo. King Gyeongsun expressed his determination to court council members on October in this year and informed to Goryeo immediately. Next month he went to the capital of Goryeo with all public official and pledged allegiance to Goryeo. With this, Silla put an end to her long history.

[주제어] 농민반란(農民反亂, The Peasant Rebellion), 후백제(後百濟, Later Baekje), 고려(高麗, Goryeo), 박씨(朴氏, Bak Clan), 남산의 신(南山の神, The Mountain Spirit of Namsan), 포석정(鮑石亭, Posokjong), 경순왕(敬順王, King Gyeongsun), 고창전투(高昌戰鬪, The Battle of Gochang)

## I. 머리말

眞聖여왕 3년(889) 尙州지방에서 일어난 농민반란은 전국적인 민중봉기의 신호가 되었다. 조정은 叛軍의 기세를 早期에 제압할 수 없을 만큼 침체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이처럼 정부의 무능과 弱體가 폭로되자 신라 전역은 순식간에 동란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내란 초기 모든 郡縣이 반란세력의 수중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전과 변함없이 조정에 충성을 바치는 지방 군현에서는 在地豪族을 중심으로 自衛의 수단을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流移民세력을 규합한 草賊들이나 혹은 지방군대의 하급 지휘관 출신의 야심가들에 맞서 싸울 만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리하여 농민반란이 터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群雄들이 망해가는 왕국의 殘骸를 놓고 서로 물고 늘어지는 무대가 되어 신라는 마치 100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의 形狀을 드러내고 말았다.

농민반란이 일어난 때로부터 10여 년쯤 경과한 서기 900년경이 되면 신라의 전 영역은 두 명의 유능한 야심가에 의해 통합되어 대체로 남북으로 분할되는 형국이 되었다. 즉 산적의 무리를 主軸으로 세력을 확대한 弓裔는 朔州와 溟州 그리고 漢州, 그 서북쪽의 溟西지역을 수중에 넣은 다음 후고구려를 선언했다. 그는 처음 開城에 定都했다가 뒤에 鐵圓으로 본거지를 옮겼다. 한편 서남해안 경비대에서 해적 소탕으로 용맹을 떨친 甄萱은 武州와 隰州 그리고 熊州 남부지역을 석권한 뒤 후백제를 선언했다. 그는 처음 무주를 습격하여 은연 중에 王者의 행세를 하다가 전주에 도읍을 정한 뒤 정식으로 왕을 칭하면서 官府를 설치했다. 그 결과 小白산맥 동쪽의 尙州·良州·康州 등 이른바 영남지방만이 궁예와 견훤의 세력권 밖에 놓인 형상이 되었으나, 그렇다고 이 지역이 신라조정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충성을 바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농민반란의 震源地였던 옛 상주 관할지역은 머지않아 후고구려와 후백제 양국의 격렬한 쟁탈지로 화했고, 王京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강주지역에서는 大耶城이 위치한 高靈郡(고령과 합천 북부)을 제외한 전역에서 王逢規와 같은 인물에서 보듯 차츰 독자적인 길을 걷는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왕경 주변의 양주지역과 그 관할에 속한 金海小京 정도가 신라조정에 호의를 보이며 공동 步調를 취하는 형편이었다.

필자는 전에 발표한 「新羅下代の 왕위계승과 정치과정」(『歷史學報』 85, 1980)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농민반란 이전 시기까지만을 다루었고, 그 이후의 후삼국시대에 대한 것은 後稿로 미룬 적이 있다. 그것은 이 내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른바 ‘朴氏’ 왕이 등장하여 종래의 金氏 왕통이 한때 단절된 사실을 重視했기 때문이다. 즉 필자는 이 왕통의 변화가 단순한 骨品制의 변질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신라 골품제국가의 실질적인 종말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四半世紀의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 왕실 교체의 실제적 의미를 밝히는 일은 줄곧 필자의 뇌리에서 미해결의 연구과제로 남아 있었으나, 아직도 그 實相은 장막에 가리어져 있다는 느낌이 든다. 韓國 역사상 최대의 진통을 겪었던 후삼국시대 동란기를 주제로 한 이번 특집호에서 고립무원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落日을 향해 一刻一刻 사그라지고 있던 신라왕국의 孤寂한 모습을 素描하면서 그간 숙제로 남겨두었던 朴氏왕실의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의 기회를 갖기로 했다. 同學 여러분의 친절한 敎示와 忌憚없는 叱正을 바라

마지 않는다.

## Ⅱ. 반란국가들의 대두와 신라 조정의 고립

농민반란이 일어난 뒤 신라조정이 이 未曾有의 非常 사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 수가 없다. 『三國史記』 신라본기에는 다만 진성여왕이 890년 정월 15일에 호국사찰인 皇龍寺에 행차하여 국가의 안녕을 비는 燃燈 행사를 관람했다는 것이 보일 뿐이다. 실제로 이 황룡사는 景文王을 中始祖로 한 당시의 왕실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 즉 이 절의 9층탑이 落雷로 말미암아 기울게 되자 여왕의 아버지였던 景文王은 871년 정월 親弟인 上宰相 魏弘에게 改造를 명하여 872년 7월 修造를 완성하였다. 이같은 인연 때문이었는지 경문왕의 후계자인 憲康王은 즉위한 이듬해 초에 황룡사에 百高座를 설치하고 친히 거둥하여 講經을 들었으며, 定康王 역시 그렇게 했다. 진성여왕은 즉위 직후 이 의식을 행한 바 있다.

진성여왕은 그 뒤 893년 唐에 사신을 보내어 旌節을 還納하는 기회에 先王들에 대한 追封과 겸하여 자신도 冊封을 받으려 한 듯한데, 이 사절단의 대표가 항해 중 溺死한 까닭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 이듬해 2월 여왕은 前 郡太守 崔致遠이 올린 時務策 10여 조를 嘉納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역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실은 최치원도 納旌節使가 바다에 빠져 죽은 직후 賀正使로 임명되었으나 도적들이 들끓어 길이 막히는 바람에 唐에 가지 못했었다.

여왕은 895년 10월 조카인 曉를 왕태자로 삼아 후계자로 확정했다. 이 요는 헌강왕이 말년에 사냥 길에 나섰다가 우연히 발견한 여인을 行在所로 데려와 관계하여 얻은 자식이었는데, 그 간 진성여왕이 쥔내로 불러들여 양육해 왔다. 여왕은 처음부터 요를 자신의 후계자로 예정한 듯 그가 경문왕 子女들의 특이한 骨相을 닮았다고 주위에 선전했다. 최치원이 여왕의 명으로 893년 撰한 「納旌節表」에 헌강왕이 886년 7월 5일 죽었을 때 요가 아직 돌이 되지 못해 정강왕이 임시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한 것을 보면, 태자로 책봉될 당시 요는 10세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진성여왕이 후계자를 지명한 이듬해 왕경의 서남방면에서 붉은 바지를 입은 이른바 赤袴賊이 일어나 군현을 휩쓸면서 왕경 서쪽 牟梁里에 이르러 민가를 약탈한 사건이 발생했다. 바야흐로 왕경의 安危 조차 보장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여왕은 897년 6월 왕위를 요에게 禪讓하고는 北宮으로 들어갔다가 그해 12월 4일 세상을 떠났다.

여왕이 퇴위할 무렵 신라의 곤경은 북방의 渤海에도 알려져서 여왕이 마지막으로

唐에 보낸 신라 사신은 897년 7월 당의 궁정에서 발해 사신에게 봉변을 당할 정도였다. 즉 발해 사신은 신라가 바야흐로 衰微해졌다는 것을 이유로 신라 사신보다 上席에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唐에 요구할 정도였다. 이 爭長사건에서 당은 前例를 들어 신라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이즈음 신라 국내의 딱한 사정은 日本측 역사서에도 생생하게 보이고 있다. 즉 『扶桑略記』 894년 9월 조에는 對馬島를 습격하다가 붙잡힌 45척의 신라 ‘해적선’ 선원 가운데 賢春을 供招한 내용이 실려있는데, 그는 “(본국에) 곡식이 여물지 않고, 창고는 모두 비어 王城이 불안하며, 더욱이 왕의 명령으로 穀絹을 빼앗아 감으로 이렇게 (일본에) 와서 노략질을 하게 된 것”이라고 자백하고 있다. 현춘의 공초에 보이는 “창고가 모두 비었다(倉庫悉空)”는 실감나는 표현은 897년 최치원이 진성여왕의 명에 의해서 撰한 「讓位表」(『東文選』권43)에서 “모든 창고가 한결같이 비었다(帑廩一空)”고 한 데서도 보이는 것으로, 당시 신라 조정이 처한 비참한 정황을 웅변으로 증언하고 있다.

진성여왕의 뒤를 이어 10대 초반의 요가 즉위하여 孝恭王(897~912)이 되었다. 하지만 신왕은 親政을 하기에는 아직 어려 上大等과 執事省 侍中 등의 輔弼을 받았다. 왕은 899년 3월 伊滄 父謙의 딸과 혼인했는데, 이 예겸은 875년 7월 헌강왕의 즉위와 동시에 시중이 되어 880년 2월까지 재임한 정계의 유력자였다. 또한 902년 大阿滄 孝宗이 시중이 되어 왕의 주변은 강화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화랑 출신으로 이름을 날린 효종은 진성여왕의 눈에 들어 죽은 헌강왕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왕실가족의 一員이 된 인물이다. 다만 효종은 신라의 지배체제를 뒤엎고 있던 暗雲을 걷어버릴 만한 정치력을 발휘하기에는 아직 貫祿이 크게 부족했다. 더욱이 그가 조정 내부의 반대파로부터 보이지 않는 견제를 받았을 것도 충분히 상상된다.

효공왕 때가 되면 오늘날의 영남지역을 제외한 전 신라 영역이 弓裔와 甄萱의 양대 세력권으로 확연히 분할되었다. 농민반란이 일어났을 당시 世達寺에서 승려생활을 했던 궁예는 머지않아 초적의 무리에 투신했다. 그는 처음 竹州의 괴수 箕萱 아래 있다가 곧 北原의 梁吉에게 몸을 던져 部將의 지위에 올랐는데, 891년경부터 200여 騎를 거느리고 북원 동쪽의 부락과 溟州 관할인 酒泉(寧越)·奈城(영월) 등 현 강원도 산간 내륙지방의 10여 군현을 습격하여 기세를 올린 다음 894년 10월에는 太白산맥을 넘어 嶺東지방의 雄都 江陵으로 진출했다. 그는 무리 3500명을 14개 隊로 편성하여 병사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함으로써 인기를 얻어 장군으로 추대되었다. 궁예는 그 이듬해 8월 猪足(麟蹄)·狝川(華川)의 두 군을 격파하면서 서쪽으로 이동하여 漢州 관할인 夫若(金化)·金城(금화)·鐵圓(鐵原) 등 10여 군현을 깨뜨렸다. 그는 898년 7월 溟西道(황해도 지방)와 한주 관할의 30여 城을 취한 뒤 松岳(개성)에 도읍을 정했다. 사태가 이처럼 진전되자 궁예와 양길과의 대결은 불가피해졌다. 결국 궁예가 先手를 써서 명목상

의 상전이던 양길을 공격해서 크게 깨뜨렸다. 그는 901년 왕을 자칭하면서 고구려의 원한을 갚겠다고 선언했다. 讖緯說의 신봉자였던 그는 革命·革命的 해로 간주하는 甲子年(904)을 기해 국호를 大東方의 뜻을 갖는 摩震, 연호를 武泰라고 하면서 廣評省을 비롯한 여러 官府를 두고, 正匡이하 中尹에 이르는 9등급의 官品을 제정했다. 그는 이듬해 철원으로 천도하면서 연호를 聖冊으로 고쳤다. 이즈음 그는 소백산맥을 넘어 尙州 沙火鎭에서 견훤의 군대를 격파, 30여 군현을 빼앗았다. 그는 장차 신라를 併呑할 마음을 품고 國人으로 하여금 신라를 滅都라 부르게 했다.

한편 궁예의 숙명적인 敵手였던 견훤은 상주 加恩縣(현 聞慶 가은읍)의 농가에서 태어나 서남해안지방 경비 임무에 종사할 때 뛰어난 용맹으로 하급 軍官에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농민반란이 전국을 휩쓸게 되자 그는 지금까지 조정을 위해 봉사해 오던 에너지를 갖고 도리어 이를 타도하려고 결심했다. 그는 무리를 모아 서남지방 군현들을 노략질하기 시작하여 순식간에 5000여 명의 반군을 지휘하게 되었다. 그는 武州를 습격한 뒤 신라 서부의 淩州·무주·公州(熊州) 등 3개 州의 持節都督軍事를 자칭했다. 그는 北原의 梁吉에게 관직을 내려 자기의 裨將으로 삼는 등 허세를 부리기도 했다. 한편 그의 視野는 멀리 바다를 향하고 있었다. 앞에서 본 894년 45隻의 대선단으로 對馬島를 습격한 신라 해적이란 실제로 견훤의 소행이 아닐까 추측하는 견해도 있다. 뒤에 그는 日本과의 通交를 피한 적이 있는데, 당시 일본 서부지방의 土豪, 관료 중에는 한반도와의 밀무역에 종사한 자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936년 반란을 일으킨 ‘해적’ 藤原純友가 평소 한국과의 밀무역에 종사하면서 견훤의 존재에 주목, 그로부터 인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배운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하는 견해도 있다. 그것은 어쨌든 견훤은 전주에 이르러 백성들의 환영을 받아 이곳을 도읍으로 정하고 義慈王의 宿憤을 씻어주겠다고 내외에 선언했다. 그는 900년을 기해 후백제왕을 칭하면서 관부를 설치했고, 남중국 연해지방의 吳越에 사신을 보내 국교를 열었다.

901년 8월 견훤은 신라의 서부 요충지인 大耶城으로 쳐들어 왔다. 다만 신라군이 굳세게 저항한 결과 후백제군은 물러갔다. 이로써 농민반란 이래 신라 최대의 위기는 일단 해소되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905년 8월, 이번에는 궁예의 군대가 竹嶺 동북지방으로 쳐들어 왔다. 이처럼 지배 영역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었으나 신라 조정은 이를 지킬 힘이 없어 일선의 城主들에게 출전하지 말고 다만 성벽을 굳게 쌓아 방어에 전력할 것을 지시하는 데 그쳤다. 이즈음 조정에서는 이미 허물어 진 州都督制를 대신하여 종전의 郡을 州 혹은 府로 승격 개편, 비상시 행정과 군사를 장악하는 知州諸軍事制를 도입한 듯하다. 이는 唐 말기의 知州軍州事制와 명칭이 비슷하여 어쩌면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올린 시무책에서 제시한 것이 아닐까 짐작되기도 한다. 하지만 당시 신라가 처한 형편에서 미루어 본다면 조정이 知州諸軍事를 임명하여 파견한 것이라기

보다는 현지의 유력자들에게 이 직책을 부여 내지 인정함으로써 왕실에 충성을 바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조금 늦은 시기의 금석문에서 보면 縣 단위에서는 制置使가 이같은 역할을 수행한 듯한데, 일찍이 견훤도 왕을 칭하기 전에 도독州군사를 칭하면서 겸하여 ‘新羅西面都統指揮兵馬制置’라 하듯 ‘制置’의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그것은 어쨌든 대야성만은 920년 10월 견훤에게 함락당할 때까지 그럭저럭 버티어 냈다. 그러나 옛 상주 관할 지역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츰 반란세력의 수중에 들어갔다. 견훤은 907년 一善郡(善山) 이남의 10여 성을 모두 빼앗아 신라 조정을 위기에 몰아 넣었다.

효공왕 때의 조정 내부의 動靜에 대해서는 상대등과 집사성 시중의 보임 기사 외에는 거의 역사서에 실려 있지 않다. 다만 이 시기에 활동한 몇몇 禪僧의 塔碑文에는 왕실 관련 기사가 조금 보인다. 효공왕은 진성여왕이 了悟和尚이나 證曉화상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中使를 보내 선승들에게 綸音을 전달하면서 그들을 왕경으로 초청했다. 당시 선종 山門 중에는 兵火를 입은 곳도 적지 않았고 또한 도적떼를 피해 서울까지 오는 일도 결코 쉽지 않았던 듯하다. 효공왕은 廣慈대사에게 운음을 보냈고, 朗空대사 行寂은 왕이 보낸 僧正 法賢을 따라 907년 溟州로부터 왕경에 당도하여 國師의 禮를 받기도 했다. 그는 이듬해 金海府로 옮겨 知軍府事 蘇律熙(다른 기록에는 進禮城諸軍事 金律熙로 되어 있음)의 환대를 받았다. 또한 진성여왕의 초청을 받고 절망감을 토로한 바 있던 證曉대사가 900년 3월에 입적하자 효공왕은 그에게 시호를 주고 瑞書學士 朴仁範에게 명해 비문을 짓게 했다. 이보다 2년 전에 道詵이 입적하자 역시 조정에서는 박인범에게 비문을 짓게 한 일이 있었으나, 시국이 혼란하여 모두 돌에 새길 수 없었다. 박인범은 최치원보다 3년 늦게 唐의 進士科에 賓貢及第한 詩文의 대가로, 최치원이 조정을 떠난 뒤 文翰계통에서 활약했었다.

『三國史記』 신라본기에는 효공왕 말년의 동정이 조금 실려 있다. 왕은 성년이 된 뒤 어떤 천한 신분의 여인에게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911년 대신 殷影이 간했으나 왕이 듣지 않자 은영이 그 여인을 잡아죽였다고 한다. 당시 은영의 정확한 직함은 잘 알 수 없고, 왕이 그에게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도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이듬해 4월 만 27세인 왕이 죽은 것을 보면 자연스런 죽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國人들은 朴氏姓을 가진 景暉(『三國遺事』에는 景徽로 表記함)를 후계자로 추대했다. 그가 바로 神德王(912~917)이다.

### Ⅲ. 朴氏王의 등장과 鮑石亭의 비극

신덕왕은 신라 초기 박씨 王系 최후의 군주였던 阿達羅王의 遠孫이라 자처했으나, 이 家乘의 사실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역사서에 의하면 이 朴氏系는 智證王 이래 法興王·眞興王 3대에 걸쳐 왕비를 배출했고, 왕경 6部 가운데 牟梁部(漸喙部·岑喙部)를 그 배경으로 한 듯 짐작된다. 하지만 그 뒤 진흥왕의 태자 銅輪과 그 아들 眞平王이 金氏 왕실의 족내혼으로 다시금 돌아서면서 朴氏系는 약화의 길을 걷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三國遺事』에는 화랑 竹旨의 郎徒였던 得鳥를 牟梁部 출신의 阿滄 益宣이 公務를 빙자하여 사사로이 賦役시키다가 발각된 사건을 계기로 조정에서는 모량부 출신 관리들을 모두 추방할 뿐 아니라 승려가 되는 것조차도 금지했다고 하는데, 죽지가 651년 2월 執事部 초대 中侍가 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7세기 전반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짐작된다.

『三國史記』 신덕왕본기에는 왕의 父를 父兼(銳謙), 母를 貞和夫人이라 했는데, 이 예견은 앞에서 보았듯이 현강왕 초년에 집사부 시중을 역임한 정계의 유력자였으며, 더욱이 그 딸이 효공왕의 妃가 된 것으로 미루어 김씨였던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三國遺事』 王曆에 왕의 父를 文元 伊干, 예견을 義父라 한 것으로 보아 生父인 文元이 박씨였음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는 文元에게서 신덕왕을 낳은 뒤 예견과 再婚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신덕왕이 박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은 현강왕의 딸과 혼인할 수 있었던 데는 왕실의 인척이었던 예견의 힘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신덕왕 개인에 대해서는 그가 潛邸時에 남산 實際寺 근처에서 살았다는 것 외에는 달리 알려진 바가 없다. 왕은 즉위한 뒤 先王으로부터 國師의 禮를 받은 낭공대사 행적을 915년 왕경으로 초빙하여 자신이 寶位에 오르기 전에 살았던 실제사에 駐錫하게 했고, 이듬해 2월 행적이 죽자 시호를 내리고 崔仁浟(崔彦擣의 본명으로 추정됨)에게 비문을 짓게 했다. 이 실제사는 祇園寺와 함께 진흥왕 27년(566) 2월에 준공되었는데, 신라 말기의 文人 崔匡裕가 지었다고 하는 詩「鮑石亭奏樂詞」에 의하면 두 절은 포석정 부근의 松栢이 울창한 곳에 동서로 나란히 위치했다고 한다. 현재 경주 남산 西麓에 해당하는 月城郡(현 경주시) 內南面 拜里에 아달라왕, 신덕왕 그리고 景明王 등 세 명의 朴氏王陵이 並存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곳이 박씨와 깊은 연고를 갖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63년 7월 도굴에 의해서 그 내부구조가 세상에 알려진 신덕왕릉은 橫穴式 석실분으로, 正方形 구획 안에 五色으로 채색되어 있는데, 이는 五行說에 의한 方位神 사상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짐작된다.

신덕왕은 金氏가 아닌 朴氏라는 사실 때문에 즉위하는 데 일정한 제약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즉위가 진골 귀족사회에서 허용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건은 역시 헌강왕의 사위였다는 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왕실의 형편을 보면 신덕왕 외에도 孝宗이 헌강왕의 사위로 侍中의 요직을 역임한 바 있다. 이 효종은 文聖王의 후예로 왕실과도 근친관계였다. 이처럼 신덕왕이 자신보다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던 효종을 제쳐놓고 즉위할 수 있었던 진상은 잘 알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신덕왕이 즉위 직후 상대등에 임명한 繼康이 그의 즉위를 적극 지지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한다. 이 계강은 효공왕 즉위 초에 집사부 시중이 되었다가 4년만에 효종에 의해서 교체된 인물인 데서 어쩌면 효종과 적대적인 입장에 놓여 있었던 인물이 아닐까 보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개연성도 없지 않으나, 신덕왕이 917년 7월에 죽은 뒤 태자의 지위에서 즉위한 景明王이 효종의 조카인 大阿漚 裕廉을 시중에 임명한 것을 보면 박씨 왕실이 효종 一家에 대해 반드시 적대적인 것만도 아니었음을 짐작케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당시 경주의 일개 지방세력으로 축소되어 있던 신라 조정에 있어 대야성이 서부 방어선의 최고 요충이었거니와, 효종의 伯氏인 迺漚 億廉이 知大耶郡事를 역임한 것으로 보아 이 집안은 920년 대야성이 견훤에게 함락될 때까지 무시할 수 없는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같은 여러가지 점을 고려할 때 신덕왕이 즉위할 무렵 효종이 이미 죽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신덕왕은 그 義父인 예겸과의 관계에 입각해서 김씨성을 칭할 수도 있는 처지였다. 그럼에도 그가 예상되는 김씨 왕족들의 저항을 무릅쓰고 生父의 姓氏를 표방하고 나온 것에 대해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즉 이는 신라왕실이 폐쇄적인 근친혼을 一貫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후삼국시대의 동란으로 이끈 종래의 小新羅主義 정책을 과감히 止揚하려는 신덕왕의 적극적인 대응자세랄까 氣慨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과연 흥미로운 견해이긴 하지만, 실제로 박씨 왕실은 3代 15년간에 걸쳐 국난 타개를 위해 어떤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 같지 않다. 『三國史記』 본기는 다만 신덕왕 때 몇 차례 발생한 天災地變을 記載하고 있을 뿐이다. 즉 915년 4월 신라 中祀祭典에 속하는 槩浦(영일군 興德)의 물이 동해의 물과 서로 부딪쳐 물결 높이가 20丈 가까이나 되어 3일만에 그쳤다고 한다. 이는 지진해일(津波) 현상이 아닐까 짐작된다. 그리고 이듬해 10월에는 지진이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우레와 같았다고 한다.

신덕왕이 917년 7월 죽자 태자 昇英이 즉위하여 景明王이 되었다. 『三國遺事』 王曆에는 왕비가 長沙宅이라 하여 그 家系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데, 이 장사택이 이른바 金入宅의 하나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력한 가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왕이 즉위한 이듬해 2월 一吉漚 玄昇이 반역을 꾀하다가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는데, 그 해 6월 후

고구려에 쿠데타가 일어나 그 간 신라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었던 궁예가 살해되고 王建이 즉위하여 고려를 개국했다. 신라는 고려와의 우호관계를 피해 920년 정월 사신을 開京에 보냈다. 그러나 이 해 10월 견훤이 步騎 1만을 거느리고 대야성을 쳐서 함락시키자 신라의 위기는 크게 고조되었다. 신라군은 916년 8월 견훤이 대야성을 침공했을 때는 잘 막아 냈으나, 이번에는 함락된 것이었다. 경명왕이 阿漚 金律을 고려 태조에게 보내어 구원을 요청한 결과 고려군이 대야성 방면으로 출동하고, 이에 따라 견훤은 대야성 동남쪽으로 향하고 있던 군대를 철수했다. 고려를 友邦으로 확보한 데 힘입어 신라는 오랜 동안 중단했던 中國과의 외교 교섭을 다시 시도했다. 그리하여 923년 7월 북중국의 後唐에 사신을 보냈고, 그 이듬해에는 정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역시 후당에 사신을 파견했다.

경명왕이 924년 8월 죽자 상대등으로 있던 동생 魏膺이 즉위하여 景哀王이 되었다. 왕은 즉위 직후인 10월 神宮에 친히 제사했는데, 이 사실을 들어서 신궁의 主神이 김씨 시조로부터 朴赫居世로 바뀐 것이 아닐까 하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역시 신궁의 주신은 조상신이 아니라 天地神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옳을 듯하다. 경애왕은 先王의 정책을 충실히 계승하여 고려와의 和親과 후당과의 교섭에 열중했다. 왕은 즉위한 다음 달 고려에 사신을 보냈고, 당시 東아시아의 신흥 강국인 거란(遼)의 침략 위협에 직면해 있던 발해의 동향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듯하다. 신라는 915년 10월 거란에 사신을 파견한 이래 그 강성함을 깨닫고 발해의 구원 요청을 묵살하고 있던 중 925년 11월 거란에 다시금 사신을 보내어 호의를 표한 바 있다. 신라가 926년 정월 거란의 발해 침략전쟁에 지원 병력을 보냈는지 아니면 이를 지켜만 보고 있었던 지를 둘러싸고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나, 실제로 군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경애왕은 926년 4월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 戰端이 열리자 고려에 사신을 보내어 후백제에 대한 본격적인 응징을 권했다. 927년 정월 고려 태조가 친정하여 龍州(醴泉郡 용궁)에 이르러 후백제군과 교전상태에 들어가자 신라는 약간의 군사를 내어 고려를 돕기까지 했다. 그리고 2월에는 후당에 사신을 보냈다.

고려에 대한 의존을 차츰 강화해 가던 경애왕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927년 9월 견훤이 왕경에 인접한 高鬱府(永川)로 쳐들어오자 國相 金雄廉이 고려 태조에게 급히 구원을 청했다. 이보다 앞서 925년 10월 고을부 장군 能文이 고려에 歸附한 것이 견훤을 자극했음에 틀림없다. 고려의 원병이 아직 경주에 도착하기 전에 견훤은 11월 갑자기 왕경으로 쳐들어 왔다. 마침 포석정에서 연회를 열고 있던 경애왕은 後宮에 숨어 있다가 사로잡혀 견훤 앞에 끌려와 온갖 핍박을 받은 끝에 自盡을 강요당했다. 견훤은 군사를 풀어 公私의 재물을 노략질하게 하고, 사로잡은 宗戚·公卿大夫·士女 그

리고 천인을 가리지 않고 害를 가했다. 견훤은 전 시중 효종의 아들 金傅를 세워 國事를 임시로 대리하게 한 다음 왕의 동생 孝廉과 宰相 英景 등을 포로로 끌고 경주를 떠나 개선의 길에 올랐다.

후백제왕 견훤이 신라 왕경으로 쳐들어가 경애왕을 죽이고 김부(敬順王)를 왕으로 세운 것을 일종의 大義名分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견훤의 진정한 목적은 신라의 併呑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김씨 왕족을 제쳐두고 즉위한 박씨 왕을 제거함으로써 정통인 김씨 왕실을 복구시키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경순왕이야말로 견훤과 內通하여 후백제 군대를 왕경에 끌어들여 경애왕을 죽이도록 한 음모의 주역일 것이라고까지 보는 논자도 있다. 이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박씨 왕인 경명왕과 경애왕 형제의 고려에 대한 친선책이 본디 김부 일파의 세력을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추리하고 있다. 하지만 경순왕이 즉위 후 후백제의 침공에 맞서 고려와의 화친정책을 계속 추진한 점으로 볼 때 이는 쉽사리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박씨 왕통은 3대 15년만에 포석정의 비극으로 막을 내리고 김씨 왕통이 복구되었다. 박씨 왕들은 이전의 진성여왕·효공왕 때에 비해서 한층 더 악화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그 개성이라든지 대처 방식은 김씨 왕들의 고식적인 타성에서 결코 탈피하지 못했다. 매(鷹) 사냥을 좋아했다는 경명왕도 실은 文人風의 군주였다. 그는 918년 10월 眞鏡대사 審希를 궁궐로 불러 治國安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심희가 923년 4월 입적하자 시호를 추증하고 스스로 비문을 지었다. 그의 동생인 경애왕 역시 漢詩를 지을 줄 아는 시인이었다. 왕은 즉위 초에 朗圓대사 開淸을 궁궐로 초빙하여 국사로 책봉한 다음 그를 흠모하는 한시를 짓기까지 했다. 『增補文獻備考』 권106 樂考에 실려 있는 繁華曲은 경애왕이 포석정에서 놀면서 불렀다는 것인데,

기원사와 실제사 두 절의 동쪽에(祇園實際兮二寺東)  
 두 소나무 서로 기대 덩굴 깊은 골에 함께 얽혔네(兩松相依兮蘿洞中)  
 머리 돌려 바라보니 언덕에는 꽃이 가득하고(回首一望兮花滿塢)  
 가는 안개 가벼운 구름 한데 엉기어 자욱하여라(細霧輕雲兮並濛濛)

라고 하듯 虛辭인 兮를 삽입하여 침잠된 어조를 지닌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兮를 제외하면 七言絶句의 양식이 된다. 이러한 점은 박씨 왕들 역시 9세기 후반부터 김씨 왕실을 비롯한 지배층의 文弱한 기풍을 조장한 詞章學에 탐닉했음을 잘 보여준다.

현실의 어려운 과제를 눈 앞에 두고 그들이 종교적 의례에 집착한 것도 이전의 김

씨 왕들과 닮은 점이였다. 박씨 왕들이 호국사찰인 황룡사에서 벌고 의식에 얼마나 열심이었는가 하는 점은 경애왕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三國遺事』 권2 紀異 경애왕 조에 의하면, 왕은 즉위한 924년 2월 19일(실제로 경애왕은 同年 8월에 즉위했음) 황룡사에 百座를 설치하고 說經을 하며 겸하여 禪僧 300명에게 음식을 먹이고 왕이 친히 行香을 하고 불공을 드려 ‘百座通說禪教’의 시초를 만들었다고 한다. 『三國史記』 권12 신라본기에 의하면 927년 3월에 황룡사 9층탑이 요동을 하고 북쪽으로 기울었다고 하는데, 그 해 11월에 경애왕이 견훤의 꾀박에 못이겨 自盡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비록 이 두가지 사실이 직접적으로 연결지어 서술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양자가 서로 결부되어 의식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 한편 『三國遺事』 권2 기이 경명왕 조에 920년(貞明 7年 庚辰) 2월에 황룡사탑의 그림자가 寸毛 舍知의 집 뜰 가운데 한 달 동안이나 거꾸로 서 있었다고 했는데, 이는 4년 뒤 왕의 죽음을 예고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경명왕 조에는 이밖에도 四天王寺 벽화에 얽힌 異變이 실려 있는데, 918년(貞明 5年 戊寅)에 이 절 벽화 속의 개가 울었기 때문에 3일 간 불경을 講說했다고 하며, 또한 2년 뒤 10월에 이 절의 五方神 활줄이 모두 끊어지고 벽화의 개가 뜰로 쫓아 나왔다가 다시금 벽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경명왕·경애왕 형제의 부친인 신덕왕 역시 불교의례에 열중한 듯한 기록이 있다. 『三國遺事』 권1 기이 射琴匣 조에는 毗處王(炤智王) 때의 설화에 대한 기사에 細註를 달아 신덕왕이 興輪寺에 行香을 하러 나섰을 때 길에서 여러 쥐들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을 보고 괴상하게 여겨 궁궐로 돌아와 占을 쳤다는 일화가 실려 있다. 국왕 임석하의 行香이나 講經은 황룡사 뿐 아니라 흥륜사, 사천왕사 등에서도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3代 박씨 왕들의 心的, 정신적 상태에 비춰 볼 때 경애왕이 견훤 군대의 압박한 왕경 침략 위협 속에서 포석정에서 벌였다는 宴會도 실은 南山 護國山神의 陰助를 기원하는 祭儀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보는 견해가 옳은 지도 모르겠다. 『三國遺事』 권5 孝善 貧女養母 조에 의하면 진성여왕 때 화랑 孝宗은 낭도를 데리고 남산 포석정에 遊娛한 일이 있는데, 同書 권2 기이 處容郎·望海寺 조에 헌강왕이 이곳에 行幸했을 때 남산신이 나타나 御前에서 춤을 추었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포석정은 남산신을 제사하는 祭場으로서도 기능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 IV. 敬順王의 高麗 의존과 歸附

927년 11월 경주를 약탈한 견훤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된 敬順王은 꼭 8년 간 재위

한 끝에 千年社稷을 고려에 바치고 歸附함으로써 신라의 마지막 왕이 되었다. 이 기간에 조정의 내부 정황을 알 수 있는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三國史記』에는 경애왕이 즉위한 이래 상대등 보임 기사도 보이지 않으며, 집사성 시중의 경우에는 917년 8월 裕廉이 보임된 이후 완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리하여 경순왕이 즉위한 직후 이미 죽은 아버지 孝宗을 神興대왕으로 追封하고, 어머니에게 王太后的 尊號를 올린 사실만이 보일 뿐이다. 경순왕 본기는 후백제의 경주 약탈 및 公山 桐藪전투에서의 고려에 대한 압승을 계기로 하여 주로 옛 尙州 관할지역을 무대로 고려와 후백제 양국 사이에 격화되기 시작한 전투의 양상과 이에 따른 이 지역 호족의 向背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사실에 관한 한 『高麗史』 太祖世家의 기록이 훨씬 더 상세한 편이다.

경순왕이 즉위한 직후 고려와 후백제 간의 전투는 한 동안 후자의 우세를 보였다. 928년 정월 고려군은 草八城(합천 草溪)전투에서 패했고, 5월에는 康州장군 有文이 견훤에게 항복했다. 이해 8월 후백제군은 대야성에 병력을 집결한 뒤 分遣隊를 보내 大木郡(칠곡 若木)의 禾穀을 빼앗았고, 10월에는 武(缶)谷城(군위 缶溪)을 함락했다. 해가 바뀌어 929년 7월 후백제군은 義城府城(의성)을 공격했는데, 응전차 나온 고려 장군 洪述이 전사했다. 이 홍술은 922년 정월 眞寶城(青松 진보)장군으로 고려에 귀부한 인물이다. 이처럼 전세가 후백제 쪽으로 기울자 順州(안동 豊山)장군 元逢이 싸우지도 않고 후백제에 항복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원봉 역시 홍술과 같은 시기에 고려에 귀부한 바 있었다. 견훤은 이 해 10월 家鄉인 加恩縣을 치다가 이기지 못해 물러났는데, 12월 갑자기 古昌郡(안동) 포위에 들어갔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왕건은 剛州(榮州)에서 급히 禮安鎭으로 출동했다. 930년 새 해 벽두에 載巖城(청송 진보)장군인 노련한 善弼이 왕건 진영에 가세했다. 왕건은 감격한 나머지 그를 尙父라 칭하여 우대했다. 그는 처음 왕건이 신라와 友好를 통하려 했을 때 중간에 나서 引導한 인물이었다. 그로부터 20여 일 지난 1월 21일 고려군은 후백제군을 고창군 瓶山(안동)에서 크게 격파하여 그 뒤의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게 되었다. 그간 고려와 후백제 사이의 싸움에서 向背를 결정하지 못했던 현 안동·청송 일대의 30여 고을이 잇따라 고려에 降附했으며, 곧이어 溟州(강릉)로부터 興禮府(울산 부근)에 이르는 동해안 일대의 110여 성이 역시 고려에 귀부했다.

고려 태조가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경애왕의 죽음을 애도한 이래 2년 이상 뜸하던 양국관계는 930년 2월 태조가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병산전투의 勝捷을 고하자 다시 금 활기를 띠었다. 경순왕은 太守 謙用을 고려에 보내어 태조와 서로 만나보기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것은 꼭 1년 뒤에 실현되었다. 즉 931년 2월 23일 고려 태조는 50여騎를 거느리고 경주에 이르렀다. 이에 경순왕은 百官을 거느리고 郊外까지 출영하여

함께 궁궐로 들어와 곧 바로 臨海殿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주연이 한창 무르익자 경순왕은 지난번 견훤이 경주로 쳐들어와 경애왕을 죽이며 대약탈을 자행했던 일이 너무나 분하다고 얘기하다가 감정이 북받친 듯 울음을 터뜨리고 말했다. 이에 왕건 또한 눈물을 흘리며 왕을 위로했다고 역사서에는 기록되어 있다.

고려 태조는 몇 달을 머문 뒤 5월 하순 경주를 떠나기 전 경순왕의 모친인 竹房夫人(桂娥太后)을 비롯하여 왕의 堂弟인 相國 裕廉(917년 시중에 임명) 등에게 선물을 주었다. 경순왕은 왕건이 떠나는 날 穴城에까지 나가 전송하고 유령을 불모로 삼아 왕건의 車駕에 隨從케 했다. 왕건은 8월 사신을 신라에 보내어 경순왕에게 錦彩·鞍馬를 보내고 많은 관리와 將士들에게 布帛을 선사했다. 신라는 왕건의 경주 방문 이래 고려의 보호를 받는 처지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종래의 타성을 벗어 던지지 못한 채 여전히 後唐에 사신을 보냈다. 신라는 932년 4월 執事侍郎 金岫을 후당에 보내 明宗에게 방물을 바쳤으며, 『五代史』권74 四夷附錄事 3 신라 조에 의하면 933년에도 朴英을 후당에 파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침내 신라 최후의 날이 찾아왔다. 935년 3월 후백제왕 견훤이 장남 神劔을 비롯한 형제들의 음모에 의해 金山의 佛寺에 유폐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 견훤은 3개월 뒤인 6월 절을 탈출하여 고려군이 점령하고 있는 錦城(羅州)으로 일단 피신했다가 그곳에서 고려 태조가 보낸 배를 타고 개경으로 망명하여 어제까지의 숙명적인 적수에게 몸을 맡겼다. 견훤은 태조로부터 尙父라는 존칭을 받았고, 그 지위는 百官의 위에 있게 되었다. 이같은 엄청난 사태의 진전에 놀란 경순왕은 더 이상 고려의 보호국 처지에서 나라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리하여 이해 10월 신하들과 더불어 社稷을 들어 고려에 항복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자연히 의견은 贊反 양론으로 갈라졌고, 특히 태자는 “오로지 마땅히 충신과 義士로 더불어 민심을 수습해서 自固의 방책을 마련해 보자”고 주장하면서 고려에 항복하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다. 그러나 왕은 아무런 죄도 없는 백성들을 무참히 죽게 하는 것을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최종 결단을 내렸다. 왕은 執事侍郎 金封休에게 항복문서를 갖고 고려 태조에게 가서 귀부를 청하도록 명령했다. 태조는 이에 호응하여 大相 王鐵 등을 경주에 보내어 경순왕을 맞아오게 했다.

그리하여 11월 3일 경순왕은 왕철의 引導 아래 百寮를 이끌고 경주를 떠나 12일 개경에 이르렀다. 당시 왕을 따르는 좋은 수레와 말이 30여 리에 뻗치어 도로는 호위하는 사람들로 막히고 구경꾼은 담장을 두른 듯했다고 역사서는 기록하고 있다. 태조는 교외에까지 출영하여 경순왕을 위로하고, 그에게 궁궐 동쪽의 큰 집 한 채를 제공했다. 그리고 22일에는 장녀 樂浪공주를 왕의 아내로 삼게 했다. 28일 경순왕은 태조에게 稱臣하겠다는 글을 보냈다. 태조는 일단 이를 물리쳤다. 30일 고려의 신하들은 “하

늘에 두 해가 없고, 땅에 두 임금이 없다”고 하면서 경순왕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上奏했다. 태조는 계속 머뭇거리다가 이윽고 12월 11일 天德殿에서 열린 宰臣·百官회의에서 신라왕의 항복 신청을 접수함으로써 신라는 그 오랜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비록 경순왕은 政丞의 관작을 받고 그 位階는 태자 위에 놓이는 등 형식상 큰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경주를 담당하는 事審官으로 副戶長 이하의 鄉職을 任免 감독하는 일에 만족해야 했다. 왕은 사위가 되는 景宗이 즉위한 직후인 975년 10월 尙父 都省令의 책봉을 받았다가 978년 4월 죽어 敬順이란 시호를 받고 현재의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에 묻혔다.

## V. 맺는 말

889년 전국적인 농민반란이 일어난 때로부터 936년 후백제가 고려에 멸망될 때까지의 전 기간은 한국 역사상 드물게 보는 극심한 동란기였다. 신라는 후백제보다 1년 앞서 그 간 보호를 받고 있던 고려에 자진해서 항복함으로써 그 긴 역사에 막을 내렸다. 후삼국 가운데 유일한 정통국가였던 신라는 반세기 가까운 내란상태에서 난국을 수습할 적극적인 자세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신라는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못한 채 시종일관 사태를 방관하면서 오로지 王京의 수호만을 기원했을 뿐이다. 하지만 옛 尙州 관할지역을 둘러싼 후백제와 고려 양국 간의 쟁탈전이 격화된 뒤로는 왕경의 위협성이 크게 고조되어 마침내 경주가 약탈당하고 경애왕이 非命에 죽는 참변까지 겪고 말았다. 바야흐로 국가사회가 해체의 내리막길을 걷는 동안 이렇다 할 군사적 준비도 없이 수도 방어만을 念願하고 있던 것만큼 지배층의 고질적인 모순과 무기력 상태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은 달리 없다고 생각된다.

신라 왕국의 취약점은 9세기를 통해서 차츰 확대되어 간 지방 지배정책의 약화, 특히 自營農을 육성하고 이들을 중앙과 지방 세력가들의 침탈로부터 보호하는 데 소홀히 한 점이 큰 요인이었지만, 이는 근본에 있어서 진골귀족 萬能의 골품체제가 빚어낸 필연적인 귀결이기도 했다. 하긴 골품체제 자체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또한 中代의 전성과 변영을 謳歌하던 시절에는 強固한 사회연대의 기본 軸線으로서 왕경 6부와 지방사회의 흡수·통제에 매우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9세기에 들어와 왕위 계승 쟁탈전이나 張保臯와 같은 해상세력의 대두로 말미암아 국왕의 권위가 크게 떨어짐에 따라 진골귀족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사회적 유대마저 약화되는 등 골품체제의 모순만이 한층 더 助長되어 갔다.

농민반란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인 지배체제가 순식간에 마비현상을 보였으나, 진골 귀족들은 한결같이 文人風의 나약한 개성을 가진 국왕에게 진정으로 충성심을 바치지 않았고, 다만 자신의 특권 유지에 신경을 썼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왕통이 김씨에서 박씨로 바뀌어도 크게 介意하지 않았던 듯하다. 이처럼 진골귀족들의 협력을 얻지 못한 이 시기의 국왕들이 호국사찰에서 百座講會를 베풀거나 혹은 남산 산신의 加護를 비는 祭儀에 열중했던 것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한편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문학에 대한 소양을 갖고 그간 국왕의 개혁정치에 봉사해 왔던 六頭品 출신 지식인들은 未曾有의 亂世에 직면하여 좌절감에 빠져버린 나머지 崔致遠처럼 은둔생활에 들어가거나 혹은 崔承祐처럼 아예 조국을 등지고 후백제에 가서 仕宦하는 등 문명사가 토인비가 命名한 바 ‘內的 프롤레타리아트’로 변신하고 말았다. 경순왕의 태자는 父王의 항복 결심에 반대하여 충신·의사와 더불어 민심을 수습하면 再起를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조정에는 그럴 만한 지혜와 실천력을 갖춘 인재가 이미 남아있지 않았다.